

역사 속 돈의 몰락

2026-01-08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part1_02

화폐 가치 하락은 산술이 아니라 기하급수다. 같은 95% 손실을 로마는 300년에, 미국은 112년에, 원화는 63년에 압축했다. 312년 K자형 화폐(솔리두스/눈무스)는 21세기에 자산 31.7% / 임금 +1.1%의 정량으로 재현 중이며, 다음 30년의 격차는 자산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가 가른다.

01 핵심 골격

- 1 데나리우스/달러/원화 데칼코마니 — 같은 95% 가치 손실을 로마(300년) → 미국(112년) → 원화(63년)로 시간이 압축됐고, $1 \cdot 2 \cdot 4 \cdot 8 \cdot 16$ 의 기하급수 패턴이 핵심. 데나리우스 안에서 1구간(95→45%) 220년 + 2구간(45→5%) 70년의 가속 곡선.
- 2 5단계 몰락 메커니즘 — 성장 정체 → 자산 불평등 → 과도한 부채 → 무제한 돈 찍기(연준 미국채 직매입) →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. 5단계는 정치 의지가 아닌 구조 문제. 종신 군주조차 못 멈춤, 4년 임기제는 더 어려움.
- 3 312년 K자형 화폐 = 21세기 자산-임금 분리 — 솔리두스(99% 금화)/눈무스(은 코팅 구리)의 30년 4,000배 격차가 자산가/임금 소득자 분리로 재현. 외부 자료(†2): 미국 상위 1% 자산 31.7%(1989 이래 최고) vs 저소득층 임금 +1.1%(2025-12). 다행히 21세기엔 중산층도 솔리두스(금) 보유 가능.
- 4 다극화 시대 진입 — 레이 달리오의 '중국 차세대 패권국' 모델은 인류 역사 단순화. 로마 몰락 이후 1,000년간 단일 패권 없었다. 외부 자료(†3): BRICS+ 금 6,000톤+ / 달러 비중 IMF COFER 56.77% (1994 이래 최저) / WGC 설문 73%가 달러 비중 하락 전망. 단일 시나리오 베팅 X, 가치 저장 수단 분산이 답.

02 최신 지표 보강 (2025 Q3 ~ 2026-04 기준 (WebSearch 자료 보강 — 회차 맞춤 4종, 강의 메시지에 새 시각 추가 / 4 패러다임 매핑))

데나리우스 함량 학술 검증 (1세기 → 3세기)

**셉티미우스 세베루스(193~211) 50% /
카라칼라(215~217) 40% / 아우렐리아
누스(270~275) 5%**

강의의 '95→75→45→5→1%' 곡선을 황제별 정밀 데이터로 검증. 220년 + 70년의 가속 곡선은 그대로 유지되며, 단일 황제 결정이 아닌 250년 누적 연쇄였다는 시각이 추가됨. 검증 패러다임.

출처 · en.wikipedia.org

미국 자산 분포 + 임금 격차 (2025 Q3, 2025-12)

**상위 1% 자산 비중 31.7% (1989 이래
최고) / 저소득층 임금 상승 +1.1% vs
고소득 +3%**

강의 § K자형 화폐의 21세기 정량 증가. 1990년대 22%에서 35년에 +10%p. Bank of America 데이터 — 자산가가 자산 가격 상승 흡수, 저소득층 임금은 사실상 정체. 솔리두스/눈무스의 21세기 증가. 각도 확장 패러다임.

출처 · cbsnews.com

BRICS+ 금 보유 + 탈달러 (2025 Q4)

**BRICS+ 6,000톤+ (글로벌 17.4%,
2019년 11.2% → +6.2%p) / 달러 비
중 IMF COFER 56.77% (1994 이래
최저, 1999년 71% → -14%p)**

강의 § '브릭스 금 사재기 / 다극화' 정량 후속. 2025년 중앙은행 매입 863톤(WGC). WGC 2025 설문 — 73%가 향후 5년 달러 비중 하락 전망 / 43%가 금 보유 늘릴 계획 (모두 사상 최고). 구조적 트리거: 2022년 러시아 외환 \$3,000억 동결. 시간 연장 패러다임.

출처 · gold.org

튀르키예 노선 전환 (2026-03)

**CBRT 정책금리 37% 동결 (5번 연속
인하 후 첫 동결)**

강의 § 에르도안 함정 평행이론에 nuance — 2023년 새 경제팀 임명 후 정통 정책 회귀, 2026-03 첫 동결. 2026년 인플레이 목표 16% / 중기 5%. 평행이론은 동기의 닻음, 결과의 자동 반복은 아님. 사례 후속 패러다임.

출처 · turkiyetoday.com

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- 01 솔리두스 후보를 분산해 보유** — 1순위는 금. 다음은 달러 표시 자산. 다극화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단일 시나리오(미국 몰락 / 중국 부상)에 베팅하지 말고 가치 저장 수단을 후보별로 분산. 강의 메시지: '2026년 솔리두스에 해당하는 핵심 가치 저장 수단은 여전히 금과 달러 표시 자산'.

02 명목 자산의 함정 인식 — 자산 가격을 자국 통화로만 측정 X. 튀르키예 부동산처럼 명목 14배 상승해도 달러 환산 41% 하락 사례. 측정 단위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명목 상승에 안심하다 실질로는 후퇴.

03 매월 임금의 일부를 솔리두스로 환산 — 외부 자료(+2)가 보여주듯 저소득층 임금 상승 +1.1%로는 자산 +31.7%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. 21세기에는 중산층도 솔리두스(금)를 일부 보유할 수 있는 환경. 매월 임금의 일부라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환산해 두는 것이 30년 뒤 격차를 가른다.

웹 보강 출처 (Perplexity)

- <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Denarius>
- <https://www.thecollector.com/inflation-third-century-crisis/>
- <https://www.cbsnews.com/news/us-wealth-gap-widest-in-three-decades-federal-reserve/>
- <https://www.federalreserve.gov/releases/z1/dataviz/dfa/distribute/chart/>
- <https://www.gold.org/goldhub/research/gold-demand-trends/gold-demand-trends-full-year-2025/central-banks>
- <https://www.ebc.com/forex/brics-gold-reserves-hit-17-4-as-the-dollars-share-keeps-falling>
- <https://data.imf.org/en/datasets/IMF.STA:COFER>
- <https://www.turkiyetoday.com/business/turkish-central-bank-unveils-2026-monetary-policy-calendar-reaffirms-5-inflation-targ-3212082>

데나리우스 가치 하락 (95% → 1%)

K자형 화폐 (솔리두스 / 눈무스)

5단계 몰락 메커니즘 (성장정체 · 자산불평등 · 과도한부채 · 무제한돈찍기 · 인플레이션)

캔틸런 효과

닉슨 쇼크 (1971년 금태환 중단)

M2 통화량 / 양적완화

레이 달리오 Big Cycle (250년 사이클)

튀르키예 리라화 붕괴 / 에르도안

Fanding @kpunch · part1_02